

koreatimes.com

 **한국일보**

“한국어교육 위해 지원과 관심 쏟아달라”

입력일자: 2014-10-31 (금)

재미한국학교 협의회(총회장 최미영)가 한국학교의 실정과 현황을 본국 정치권에 알리면서 지원금 요청에 나섰다.

최미영 총회장은 최근 본국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을 찾아 재미한국학교의 실정과 현황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. 이 자리에서 최 총회장은 "주말 한국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은 각 학교 운영비의 20%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"면서 "본국 지원이 더 많아져 한인동포 2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힘을 더해야 한다"고 전했다.

최 총회장은 또한 "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는 전 세계 2,000개 한국학교 중 1,000개의 소속학교로 이루어져 있다"면서 "전 세계의 한국학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진이 있는 단체"라고 강조했다. 그는 또한 미주의 한국학교들은 한국어 교육은 물론 동포 학생들의 바른 정체성 함양을 위해 역사문화 교육과 함께 독도 문제, 위안부 문제 등 시사적인 면도 가르치고 있으며 앞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, 학생 모국 방문 등의 강화 및 교재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밝히기도 했다.

이에 심윤조 의원은 한인2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시한 뒤 "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다짐했다.

한편 이날 방문에는 노영혜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후원회장(현 종이문화재단 이사장)이 함께 방문, 힘을 보탰다.

< 이광희 기자 >

최미영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 최근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을 방문, 본국의 지원을 요청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.(왼쪽부터 노영혜 이사장, 심윤조 의원, 최미영 총회장)

< 사진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>

Copyright © koreatimes.com All rights reserved. E-mail to webmaster